

테마칼럼

이성현

정치브리콜

정리리본

문화향기

사경변상도에 취하다

(寫經變相圖)



조현중

나는 지난 8일 사경을 주제로 한 학술강연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나는 강연회를 개최한 까닭과 이번 강의를 진행할 강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사가인 강우방선생이란 것과 그의 몇몇 이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의례 그렇듯이 학술강연회란 제목부터 딱딱한 것이어서 강사를 소개하고 나면 대부분 참석자들은 그날의 강연회를 진단한다. 이번 강연회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아니면 그렇고 그런지를 파악해내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불교미술의 한 장르인 사경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양식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사경은 불교경전을 베껴 쓴 것으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초기불교시대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전달매체였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는 공력을 쌓는 신앙적인 의미와 결부되어 형식을 바꾸어 나간다. 단순하게 경전을 베껴 쓰는 작업이 아니라 종교한 신앙의 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경의 제작은 눈으로 경전을 보고 옮기는 작업으로 혹자는 부처를 향한 성스러운 戀書라고도 했다. 한 자 한자씩 써내려가는 신성한 행위는 부처의 마음이 아니 되면 실로 어려운 일이며 서예의 정취와 의식이 따랐다. 종이는 뿌리에 항을 뿌려 키운 다투나무로 만들 것과, 존엄한 선지식으로 신중해야 할 것과, 특히 이러한 사경의 전통은 고려시대에 더욱

서울 아닌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학술강연회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탈 행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최초의 사경 전시를 기념한 강연회는 아름다운 우리미술에 매료된 숲소리만 가득하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특별기고

전학철



가을보다 더 빛난 '광주의 10월'

가을 국화꽃을 마주하고 잠시 숨을 쉰다. 그러나 그윽한 향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한 심장은 마치 '광주의 10월' 마냥 여전히 뜨겁다. 지난 14일 7일간의 화려한 합성을 뒤로한 채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광주시는 57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185개의 메달을 거둬 종합순위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벅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작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건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적이 아닌 '광주'라는 이름이다. '꿈도 함께, 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 라는 구호 아래 치러진 이번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는 16개 시·도 및

서 그들은 수인사가 아닌 짐승 어린 강사의 말을 전해주었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되는 질서있는 도시의 모습이 놀랍고 감동적이까지 하다고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동포선수단 역시 광주의 달린 모습에 놀라워했다. 민주의 성지라는 역사적 글래와 더불어 강성 이미지로만 각인됐던 광주가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문화수도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도 견줄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체전이 1천1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전국체전 역대 최고의 성적보다 값진 건 3만 손님 감동시킨 시민들의 친절·열정"

해외동포선수단 등 3만여명의 선수·인원이 참여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시는 잔치집에 3만여명의 손님이 찾아온 셈이다. 체전 기간 중 그리고 체전이 막을 내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손님'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광주의 새로운 모습, 진정한 광주의 참모습을 보고 느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개막 5개월 전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 3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체전에 함께했다. 시민 서포터즈단도 2만5천여명이 등록해 각 시·도선수단의 경기장마다 따라다니며 마치 내 가족 내 형제를 응원하는 것처럼 성원을 보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민봉사단의 이름으로 17만여명이 내 집 앞 쓰레기부터 교통질서 확립, 친절과 정갈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율실천 운동을 펼쳤다. 선수단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는 광주의 미향과 예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숲선수범으로 나서주었다. 각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 회의에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거둔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광주시를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최종 국내후보도시로 선정하여 최종 정부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 5월에 개최할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광주시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우리시를 찾은 '손님'들의 평가이자 각종 국제행사의 연이은 유치로 입증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브랜드 '광주'로서의 중단없는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광주와 광주시민은 최고라는 평가를 누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광주시민이라는 자족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10월이다.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의료칼럼

이원구



HDTV 시대가 열리면서 선명한 고화질로 얼굴 모공과 작은 점까지도 그대로 드러낸다. 두터운 화장으로 감춰졌던 탈린트들의 얼굴이 안방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인터넷에서는 때마침 '화장발' 논쟁을 일으켰다. 급기야는 맨얼굴이 각광받는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냈다. 바야흐로 이른바 화장을 하지 않는 '생일 얼굴'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도 불고 있다. 미인의 반은 피부라는 말이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에 피부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필자가 보기에든 우려한 윤곽선, 눈매, 콧날 어떤 것 하나 흠잡을 때 없는 미

수개월동안 지속되기도 하여 쉽사리 치료 받기를 결정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프락셀 레이저는 얼굴 전체를 파괴하는 기존의 레이저와 달리 시술 후 흉터와 부기가 금세 가라앉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다. 깊은 흉터 부위에 수천 개의 미세구멍을 만들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깊게 갠 여드름 피부가 빨리 효과적으로 재생된다. 여드름흉터 뿐이 아니다. 화상 흉터, 수술자국, 수두자국, 트실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콜라겐 재생효과로 인해 모공이 축소되고 잔주름이 개선되며, 기미와 잡티도 없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피부미인 이젠 어려운 일 아니다

인형 얼굴이 일부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망가지는 사례가 많다. 작은 정성만 들여도 금방 개선될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피부 트러블중 가장 많은 것은 여드름 흉터와 잔주름, 그리고 모공이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장비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 나뉠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치료 기간과 효과도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여러가지 트러블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프락셀 레이저를 추천한다. 예전에 여드름 흉터는 화학박과 및 레이저 박피를 해야 했다. 이는 1주일 정도 진물이 나는데, 시술 후 흉터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로 '백옥 피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1차 시술 일주일 후 모공이 축소되고 흉터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매끈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시술 시간은 10~30분 정도이며, 흉터 깊이에 따라 2~3주 간격으로 3~5회 시술하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게 된다. 1세대 프락셀의 가장 큰 문제는 시술시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마티스프래셀'은 통증이 거의 없어 수면마취나 부분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해 많이 편리해졌다.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 없이 '생일 미인'으로 변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용기를 내서 과감히 병원을 두드려 보라. <SMI성형외과원장>

수능 문제지 회수하지 말고 수험생에 돌려줬으면

매년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매 시간마다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를 회수해 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보통 시험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문제지와 정답이 공개되는데 굳이 회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교육부는 혹시 채점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답안지와 문제지에 표기한 것을 대조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제지와 답안지에 표기한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설사 같다고 해도 컴퓨터 채점이 우선시 되지 않는가.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자신이 표기한 정답을 따로 다른 데에 옮겨 쓰느라 많은 시간

을 빼앗기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후 정답을 맞추어보고 점수를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차라리 시험이 끝날 때마다 문제지를 수험생에게 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년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도 좀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와 관료의식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매시간 시험만 끝나면 문제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지를 회수하지 말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면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정동>

시설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공항 이전 신중해야

다음달 8일 무안공항 개항을 앞두고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전남도는 무안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이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지역민의 편의를 외면한 황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제선 정규노선과 목포공항 국내선을 넘겨받은 뒤 국제노선을 확대해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용선 건설교통장관도 최근 지방대학 초청강연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의 무안공항 이전을 못박았다.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 광주공항은 전국 16개 공항 가운데 수익을 내는 4곳 가운데 하나다. 광주공항이 자체 수요와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국제선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경제 악영향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국제선 이전만으로 무안공항이 조기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오히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모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고객 전부가 무안공항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를 주장하는 항공사의 입장도 존중돼야 한다. 어느 항공사가 이용객이 적은 공항을 이용하는가. 무안공항 활성화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겨우 자립기반을 갖춘 광주공항의 노선을 빼앗는 방식의 활성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신규 국제선 개발 등 스스로 활로를 찾아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동안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외면한 건교부의 태도는 비관받아 마땅하다. 무안공항 이용객 유치를 위한 광주공항 조정계획은 제검토해야 한다. 건교부와 광주시, 전남도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서로 이익이 되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호남권 SOC, 영남권 절반 수준이라니

우리나라의 도로, 항만, 공항,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60%가 영남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호남권 SOC는 영남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런 현실에선 호남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SOC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04년 기준 영남권 SOC 총액은 전체의 30.2%에 달했고 수도권은 29.1%였다. 반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은 17.4%, 충청권은 14.7%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SOC의 지역간 격차는 심화돼온 것이다. 광주·전남의 SOC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가 16개 시·도 공무원과 지역발전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SOC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광주 36.4%, 전남 50.0%였다. 광주는 광역시 중 가

장 높았고 전남은 9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였다. SOC의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발정책이 낳은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주요축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경부(京釜)선이었다. 도로와 항만, 공항 등 SOC 확충도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뤄져왔다. 개발축에서 벗어난 호남과 충청, 강원 등은 그 편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진 것이다. SOC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SOC는 인·물·자금의 이동맥 역할을 한다. SOC가 빈약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돼 경쟁력을 잃게 된다. SOC가 확충돼야 사람과 기업이 몰려들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 등 호남권 SOC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영남권의 절반 수준인 SOC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無等鼓

남을 모함하는 투서(投書)는 우리 관료조직에 뿌리 내린 못된 악습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투서와 관련된 기사가 636건이나 나온다. 하서, 성종 임금은 즉위 후 그 폐해를 인식, 의정부(議政府)에 전교(傳敎)를 내렸다. (성종 2년, 1471년 5월1일) "...이제 또 익명으로 권내에 투서한 자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간찰한 무리 가 자기에게 불평한 것이 있어 도리에 어긋난 말을 엮어 만든 것이다. 이러한 풍습이 한 번 시작되면 뒤라서 스스로 편안하겠느냐? 금주 모든 익명의 투서는 비록 국가의 중대함에 관계 되었다 하더라도 한결 같이 모두 불문에 부치라. (今又有投匿名書於闕內者 此皆奸猾之徒 有不便於己 輒構不道之言 此風一開 人孰自安 今後 凡屬匿名 雖關係國家重事 一皆不問)

담양 출신 하옥현 광주경찰청장의 직위해제도 투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지난 7월 광주청 개청(開廳)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골자. '뒤통사'는 사실후근이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임 100여 일 만에 물러난 그를 보면서, 고위 공직자가 처신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산(茶山)이 '벼슬살이의 마음가짐'(四藥)을 세우면 민간(牧民官)들을 일깨운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선비는 '버릴 기'(棄) 한 글자를 벽에 써 붙이고 눈여겨 보아야 한다. 행하는데 장애 되는 일이 있으면 버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버리며, 뒷사람이 무례하면 버리며, 올바른 자신의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버린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없이 '카더라' 통신에 의존, 기관장을 흐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익명(匿名)이라는 어둠의 장막 속에 숨은, 무고 사범을 영단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기대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투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憲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관 내 부 2200-551
경 치 부 2200-616	어촌개발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치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